

는 귀꽃모양의 山形文이 彫飾되었고 豊麗하고 自然스럽게 느리워진 蓮瓣의 手法에 注目되었다. 坐像周緣에는 蓮華座에서 頭光頂上까지 寶珠形을 그리며 雄麗한 火焰이 彫刻되었다.

各部彫刻이 完全하고 어깨와 가슴이 堂堂하며 均整한 몸매와 雄健한 各部手法로 보아 年代는 羅代 佛教美術의 精華期에 造成된 秀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坐高 二〇〇 頭高 七〇 肉髻高 一五 耳長 四〇 肩幅 八〇 胸幅 五四 膝高 四八 膝幅 一四三 光背廣幅 二〇〇 蓮華座幅 一〇七 蓮華座高 上四三 下三三 拜禮石으로 推定되는 板石 八四 cm × 一一三 cm 陽刻厚 一五이다.

이 調査는 新羅五岳調査團의 第二次 調査計劃으로 지난 二月三日부터 約二週日間 實地된 八公山 踏查時 一行 文甲洙, 金和英 諸氏와 桐華寺僧 李鏡海 念佛庵負木인 朴仁奎氏 等과 筆者에 依하여 一月六일에 처음 發見되었는데 그날은 夕陽이어서 佛像의 位置만을 確認하고 돌아왔으며 翌日인 七日에는 桐華寺의 諸僧과 金和英, 筆者 等 一行이 三次로 山頂에 올라 찰영과 實測等 再調를 實施하였다. 언제부터인지 이곳에는 人跡이 끊어져 佛像을 拜謁하는 客 하나 없던 이곳에 一月七日을 期하여 雜草木을 헤쳐 새로운 通路가 마련되고 佛前에 供養을 올리게 됨에 一同 感慨無量하였다. 坐像바로 앞에 놓인 平坦한 自然石을 拜禮石으로 삼고(실상 인즉 拜禮石으로 推定된) 一行은 再拜를 올렸다.

註

① 拙稿 「八公山頂의 石佛兩軀」(本誌 第一卷 第三號)에서 (二) 主峰巒崖石佛立像

② 石城은 上條에 三處現存하는데 모두 石城築造의 通式으로서 그中 頂上標石이 있는곳에 길이 二二m의 石城이 남아 있다.

靑華白磁 「丙申」銘山水文八角瓶

鄭 良 謨

우리나라 靑華白磁(世祖以後) 文樣이 明靑華의 影響을 받고 回靑靑土 明에서 求得하던 極初期를 조금 지나면 回靑이나 土靑을 併用하던 時期로부터 李朝獨自의 文樣이 漸次로 確立된다. 즉 文樣의 主題와 作圖가 韓國的으로 되어가고 器面의 一部分에 限하여 簡潔한 文樣을 조금씩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당시 施文手法으로는 器面의 어떤 一部分에 그대로 施紋하는 方法, 器面의 一部分에 施文되 一定한 구획을 지어 놓아서 즉 四花形 또는 稜形(四稜形), 圓形內에 施文하는 方法, 그리고 器面의(주로 항아리 甁류의 경우) 밑으로부터 1/3되는 곳에 가로 一線을 劃하여 그위에 施文하는 等의 手法가 있다. 이러한 手法는 初期부터 末期까지 그대로 계승되지만 단지 後期로 갈수록 문양이 그릇의 面을 차지하는 面積이 커지며 一定한 구획의 범위가 넓어지고 무늬가 많아지며 이와같은 施文手法가 걸쳐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紹介하러 는이 「丙申」銘靑華白磁瓶은 이러한 裝飾무늬와 器形의 變遷을 종합적으로 考察할 수 있는 資料로서 李朝靑華白磁研究에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瓶은 八角으로 된 長脛瓶이며



口緣部를 밖으로 말아서 머물렀고 목은 짧고 胴部는 膨大되어 있다. 형태 면에서 보면 膨大한 胴部는 初期 도마리의 요지 파면에서 볼 수 있는 靑華白磁 菊草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七)이나 靑華白磁蘭草文八角瓶(세계도자全集) 十四卷 도판(九八)보다는 훨씬 膨大하였고 亦 初期手法인 靑華白磁竹蘭草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五) 靑華白磁仙挑文八角瓶(이 조도자보) 도판(二六) 靑華白磁梅竹文八角瓶을 보다는 若干 팽대하여 있다. 文樣은 瓶兩面에 二個의 四稜形으로 된 開窓內에 각기 화제가 다른 山水文을 主文樣으로 배치하였고 이 稜形開窓 사이의 器底로부터 전체 길이의 1/4쯤 되는 위치에는 平行雙線을 그어서 그 위에 竹文을 배치하였다. 主文樣인 이 稜形開窓은 거의 胴部全面을 차지하였고(主高的 1/2) 이 같은 開窓구역의 擴大는 初期에 屬하는 開窓보다 훨씬 擴大되어 있다. 初期瓶類에 나타난 稜形이나 圓形의 開窓이 전체 높이의 약 1/3強(고적도보) 一五권, 一三(八三頁)「이 조도자보」도판(一), 동도판三「고적도보」十五권(二二四頁右端)이던 것이 여기에에선 1/2로 늘어나서 그面積은 2배쯤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두 稜形開窓을 연결한 가로 그은 두개의 선만은 前揭 初期의 八角瓶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문양 自體로 보면 開窓의 一面은 누각산수요, 다른 一面은 人物山水圖이다. 이와 같은 구도의 누각山水圖는 金沙里代의 製作으로 생각되는 靑華白磁山水文注子瓶(민병도씨 소장)과 靑華白磁山水文壺(이 조도자보) 도판(一九) 등에서 보이며 明代의 靑華文樣에서 轉化된 그림으로서 그림 자체는 分院期에 흔히 보는 三山形의 山水文이 아닌 비교적 格調있는 中國山水畫風이다. 굽外面에는 靑華로 一線을 돌렸고 굽안은 약간 길으며 이 굽안 한쪽에 치우쳐 청화로 「丙申」이라는 干記가 써 있다.

以上 考察에서 이 瓶이 대강 李朝前期의 手法과 많은 差異點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丙申이라는 干記와 아울러 생각할 때 대체로 金沙里時代末로 比定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四稜形의 구획이 最大로 넓어졌으며 그 안에 문양을 가득 그린 것은 文樣을 아낌없이 그리던 分院期의 手法과 흡사하나 文樣自體가 分院期에 比해 細筆로 간결하고 品位있게 그려져 있다. 또한 分院期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二개의 四

稜形을 연결한 橫線을 그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 등은 오랜 手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취이다. 靑華의 發色에서도 初期보다 맑지는 못하고 조금 칙칙한 곳이 있지만 대체로 고운 便으로 分院期에 一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紫色이 감도는 發色과는 다르고 分院甲燻의 굽기만 한 靑華보다 약간 검은 빛이 있다. 유약에 있어서도 金沙里一般의 밝고 광택있는 유약과 다르나 分院一般의 帶靑灰白釉나 또는 水裂이 있고 광택있는 帶淡靑의 유약이나 甲燻과 같이 氣泡가 많고 帶淡靑을 띄운 고운 유약보다 深味가 있고 安定味가 있다. 굽의 정리에선 굽外邊에 一線을 둘러는 것은 中期以後에 나타나는 一般의 人 手法이며 그것은 分院期에도 담습되나 굽內을 파내는 것은 分院期에 흔히 나타나는 手法으로 대체로 中期末에서 부터 始作되는 手法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瓶은 分院期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것으로 보고 싶다.

丙申年은 孝宗七年(一六五六), 肅宗四二年(一七一六), 英祖五二年(一八三六)이 이에 該當함. 分院의 初를 英祖二八年(一七五二)으로 본다면 以上 三個年代中 英祖五二年은 이미 分院期에 들어간 뒤이고 孝宗七年(一六五六)代의 作風보다는 分院期에 가까우므로 肅宗四二年(一七一六)에 比定코자 한다.

瓶高二一·七cm 口徑三·二五cm 底七·四cm 胴一三·〇cm 口緣에 一部 수리가 있다. 모래받침
(追記 이 調査는 一九六四年 九月二四日 全南光州市 權小兒科病院長宅에서 하였음)

慶州 狼山西麓의 磨崖三像

鄭 明 鎬

一九六三年 三月初 어느 따뜻한 봄날 然齋先生을 따라 狼山周邊에 散在하고 있는 遺蹟址를 踏査한 일이 있었다. 그때 특히 狼山西麓寺址의